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나를 사랑해!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If you' 시리즈의 작가 로라 누베로프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운율. 엄마, 아빠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렸다.

(랜덤하우스 코리아·9천원) ▲호미를 먹은 쥐 = '연어'의 시인 안도현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불교승화, 인도의 전설과 민담 540여편 가운데 친구, 나물, 검은 등 3개의 화두로 나온 10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파랑새·9천원)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 =8명의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한국사 강의. 인류의 탄생부터 한반도 최초의 문명과 국가를 일군 사람들의 역사

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웅진주니어·1만원)

▲말하는 꼬리리와 춤추는 소나무 = 어린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옛날이야기. 마음

씨가 나쁜 새엄마의 계략에 의해 오빠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자 막내 여동생이 지혜를 발휘해 오빠들을 찾고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사계절·9천800원)

▲검정 고무신(제13권)=수업료 내기

가 조차 힘들던 시절,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의 이야기를 그린 '검정 고무신' 시리즈, 북쪽에서 어린이 기영이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5개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파랑새·8천원)

6인이 들려주는 '배신 공화국'

21세기를 사는 지혜 - 배신 김용철 외 6인

우리가 흔히 쓰는 '염장 지른다'는 말의 어원은 '배신'에서 시작했다. 신라 후기의 무장 염장(閔長)이 거짓 항복을 한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장보고를 살해한 것에 빗대어 나온 말이다. 첫 사람의 아련한 약속을 저버린 연인, 돈 때문에 도망간 친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밀을 발설해 버린 직장 동료 등을 두고 우리는 '배신자'라는 이름을 달아 증오하기도 한다. 배신은 대부분 믿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더욱 참혹한 슬픔을 안겨주곤 한다. 이 책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주최한 릴레이 인터뷰 특강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출간했던 '자존심' '거짓말' '상상력' '교양'에 이은 다섯 번째 '21세기를 사는 지혜' 시리즈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배신, 나의 배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

더드를 가지고 회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일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비사실 구조조정 부분은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이 국민과 직원들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또 김 변호사는 "조직의 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니, 오히려 배신했다고 하더라"며 "법대로 가지 않는 게 배신이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는 "우리 사회에는 배신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배신을 한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배신이라는 감정이 남용되고 있으며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배신의 대부분은 무늬만 배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내 행동은 동기부여 이해를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결과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으로도 불리는 진중

권 교수는 '집단의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문화는 특정 사안에 접근할 때 일인칭(자신의 판단)이 아닌 삼인칭(다수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신의 반대 개념인 '신뢰'의 중심이 자주 흔들리게 되고, 대중들은 "저 사람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뢰를 품게 된다는 것이다. 진 씨는 "이 같은 집단의 배신이 사회의 올바른 검증 기능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화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신으로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을 꼽았다. 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 배신'을,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학생을 버려두고 정치로 뛰어든 '폴리페서'(Polifessor)의 배신을 각각 꼬집었다. 강사, 사회사, 청중 등의 문단 과정은 그대로 책에 실어 현장감과 책 읽는 데 속도감을 더해줬지만, 특강 내용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 논리의 전개가 일관되지 않고 흐름이 자주 끊기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 왼쪽부터 김용철 변호사,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조국 서울대 교수, 진중권 문화평론가.

세계 빅3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전략

운동화 전쟁 바버라 스미트 지음

아디다스, 푸마, 나이키. 세계 3대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을 담은 '운동화 전쟁'이 출간됐다. 비즈니스 칼럼리스트인 프랑스의 바버라 스미트가 쓴 '운동화 전쟁'은 세 기업의 창업 과정과 성장, 침체와 몰락, 재기의 성공 신화를 담은 책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전쟁, 기업인사권 등 숨막히는 대결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아디다스 창업자 아디 다슬러와 푸마 창업자 루디 다슬러 형제의 전기이자, 두 회사의 기업 역사를 다룬 책이다. 또 아디다스, 나이키 에어, 르코그 등 유명 상품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나디아 코마네치·데이비드 베컴, 사마리아 IOC 위원장 등 맹장한 스포츠 스타와 거물들이 이들 '빅 3'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3천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를 통해 본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

일본, 영상, 미국 나카이 나오키 지음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제국주의적 식민 질서를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미국 코넬대 아시아학과 사카이 나오키 교수가 펴낸 '일본, 영상, 미국'은 '디아헨터' 등 영화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과거'를 재현하는 데 이용되었는지 밝힌 책이다. 눈에 띄는 글은 4부 '내전의 폭력과 국민주의-박사사상을 해석한다'. 지난 1997년 광주비엔날레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던 저자는 '민주주의 이념과 그 실천의 분기'인 광주의 망월동을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광주항쟁과 현대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다룬 이창동 감독의 '박사사상'을 분석했다. 또 '디아헨터'는 반전영화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은밀한 전도사 역할을 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아시아의 백인 일본인이 패전 후 어떻게 우의적으로 살아가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린비·1만8천900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경제의 지부세! 대충법률경매(주) T.062)227-6666 011-646-2226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한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61-8949 한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